

쌀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생산비 반영해야

수확기 가격만 고려해 목표가격 정하게 되면 농가소득 감소 우려... "목표가격 도출방안 마련 해야"

쌀 목표가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생산비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 국회는 변동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새로 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2013년 산부터 2017년산까지 쌀 80kg당 18만 8000원으로 고정하고, 이는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가격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서는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변

동률과 쌀 생산비도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만을 고려해 목표가격을 정하게 되면 18만8000원을 밑돌게 되고, 결국 농가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김중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무너진 농업정책의 대안을 제안한다"면서 "첫째로 쌀 목표가격을 그동안의 물가변동률과 생산비 증가 등을 반영해 20만원대 이상이 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이춘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에는 목표가격은 수확기 평균 쌀값, 쌀 생산비, 물가변동률 등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해수위는 물론 농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2012년에 2013년산부터 적용할 목표가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에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의견이 개진됐

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2012년도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목표가격에 적용하면 매년 산정할 때마다 목표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서 정부가 완강히 반대했다"며, "그 결과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회에서도 목표가격을 둘러싼 정부와 농업계간 이견이 있을텐데, 지금부터 국회와 농업계가 합리적인 목표가격을 도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건설노조, '적극적인 준법투쟁'에 건설업체들 주의 요구

불법 외국인 고용과 안전시설 미비·환경 조치 위반

건설노조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들을 적발,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준법투쟁'에 나서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전문건설업체 분사들을 상대로 전국적인 표준임금과 노동조건을 함께 결정하는 중앙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건설현장에 대한 준법투쟁에도 돌입해 곤욕을 겪는 업체

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준법투쟁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로 불법 외국인 고용과 안전시설 미비, 환경조치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들로, 위법 증거들을 수집해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준법투쟁'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까지 벌여왔던 근로자의 잔업 거부, 정시퇴근 등 '소극적인 준법투쟁'과는 대비된다.

건설노조는 최근 각 업체별로 '내국인 우선고용을 위한 불법고용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해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건설현장 내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건설사들과 단체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문에서는 "불법고용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며, 향후 불법고용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법적 책임과 함께 자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곤혹스런 입장이자.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해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적법하게 일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법을 지키리니 할 말은 없지만 말이 준법투쟁이지 실력행사나 마찬가지"라며 "내국인 고용은 물론 최근에는 합법 외국인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업체가 불법 외국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 5.6%로 소폭 증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수주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3월말 조사·발표한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1/4분기 도내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209건으로 전년동기(198건)대비 5.6% 증가했다.

또한 발주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3,129억원에서 3,189억원으로 1.7%, 도내업체의 수주누계액은 1,913억원에서 1,930억원으로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증가한 요인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등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년도 대비 발주물량이 소폭이나마 증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에 따라 하반기에 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며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공사 발주시 전북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정책을 추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만금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도로공, '수목원에서 봄바람 페스티벌' 개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서 봄바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수목원의 4월은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기임을 고려해 숲속 음악회, 야생화 사진전시회, 통기타 가수 자선 공연, 안전벨트 시뮬레이터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기간에는 휴원(매주 월요일) 없이 매일 방문객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수목원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별종유기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봄꽃이 만발한 한국도로공사수목원에서 숲속 음악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하시어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페이스북,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전북지역수출기업협회 | 일자 및 장소: 2017. 4. 14(금) 비나예(주)



"기술·경영혁신에 매진 할 것"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릴레이식 애로해소 현장 간담회 주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4일 전북을 방문해 창업기업과 수출기업을 격려하는 등 릴레이식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주청장의 전북방문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2월 4일 익산지역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와 군산지역을 방문했다.

주청장은 먼저, 전북지역의 대표적 창업선도대학인 전주대학교를 방문, '한국기계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학회 소속의 교수, 연구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이라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변혁을 가져올 4차산업혁명의 방향과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 중소기업의 역할 및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에서 집중육성중인 유망 기술창업의 스타트업 8개사와 도시락을 겸한

오찬간담회와 필복동에 위치한 수출기업 B사를 방문해 전북지역 수출선도기업인 8개사와의 연이은 릴레이식 애로해소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타트업 및 수출기업 대표자, 직원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건의된 수출·자금·R&D 등 현장애로 20여건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검토하여 개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정책 및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최대한 해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작은 내수시장만으로는 우리 기업성장에 한계가 있는만큼, 광대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역량 강화 다양한 맞춤형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FTA로 국내시장도 글로벌기업이 진출가능한 각축장이 될 것이므로수출기업은 물론 내수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